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



박 현 수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전 세계의관심속에치러진미국대선은예상대로오바마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유색 인종으로서 강고해보이던 인종 차별 의벽을넘어선것은분명히대단한일이다. 이는오바마가그만큼매력있는후보였기때문이기도하지만오랜전쟁과금융위기로인해미국국민의변화를바라는욕구가컸다는것을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단지 노예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흑백 차별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세웠다는것외에미국의정책에도큰변화가초래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대선과함께치러진상·하원선거에서도민주당의우위가 더욱 커져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은 민주당의 노선이 강하게반영될것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가추구해왔던여러 정책들이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본고에서는향후 오바마정부의경제정책기조와주요이슈별정책을전망해보고, 그영향과대응방안을간략히짚어보고자한다.

시장주의에서 개입주의로의 전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 정책은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면서 ‘이란성쌍둥이’로 불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당의 경제철학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사조로 본다면 공화당은 고전주의 혹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공화당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신뢰하는 편이다.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장 가격의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조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장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세금도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케인즈 경제학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태어난 사상이다. 대공황은 경제의 불균형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금방 시정될 수 있다는 고전주의적 경제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에 케인즈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심판 역할에서 벗어나 경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제사상은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후 양대 경제사상은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서로 경쟁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도 양당의 경제정책 기조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공화당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주된 지지층인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나 노조가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강자인 반면, 근로자나 노조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이해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당의 정책이 항상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금융 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금융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금리 규제 완화, 은행에 대한 증권업 무의허용, 은행의 주간(州間) 업무 허용 등으로 서주로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대통령 시기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규제로 남아 있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규정, 즉 글래스-

스티걸 법이 폐지된 것은 1999년의 Gramm-Leach-Bliley 법에 의해서인데, 이때는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고있던시기이다. 이후부시정부에서도이러한규제완화의기조는 이어졌는데, 오바마와민주당은 규제나 감독 등이 변화한 금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과 금융 위기가 초래되었다고주장한다. 즉, 금융지주회사를통해금융권간업무장벽이사라져서금융업무의통합이크게진전되고주택저당채권 등 자산의 유동화와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도 규제가나감독은과거의방식에서머물러있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오바마는 규제의 강화와 감독 체계의 정비를 금융 위기의 해결책으로제시하고있다.

이처럼양당의경제철학이근본적으로다르기도하거니와작금의금융위기의원인에대한인식까지겹쳐있기때문에오바마의당선과민주당의의회지배력강화는필연적으로그동안의 규제완화또는시장주의로부터정부의역할이중시되는개입주의로전환할수밖에없다.

주요 이슈별 정책 방향

금융위기및경기침체에대응하여오바마정부는앞서설명한 것처럼금융시스템의개혁을 추진하는한편, 경기부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장인 민주당의 펠로시 의원이이미 1,500억달러의경기부양책을제안한상태로서대선이후본격적으로입법에나설전망이다. 이는균형재정을강조해왔던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경기부양이더욱중요한시점이라고판단하고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와경기침체문제거여느정도에해결되고나면재정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재정지출을억제할것이다.

미국의 경제 정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양당의 정책 기조는 통상 정책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공화당은 자율과 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을 옹호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불공정한자유무역이미국내일자리를해외로유출한다고주장한다. 더욱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환경, 근로 조건 등의 진보적 가치를 통상 정책에도 반영하려고 하며, 이는 2007년에 소위 ‘신통상정책’으로나타난바있다. 오바마는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NAFTA미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지못하였다고평가하면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특히자동차교역의불균형을문제삼아협상내용의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더욱이경기침체로미국내일자리가줄어가고 있어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보인다.

공화당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가 강하게 드러나는또하나의분야가조세정책이다. 민주당과오바마는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앞당겨 폐지하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기업의 해외 투자를촉진하여 일자리를 유출시키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세금감면을공약하면서, 특히중산층의세금감면혜택을 늘릴것이다.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정책(New Energy for America)을발표하여현재의비효율적이고수입의존적인에너지구조를개선하여에너지독립형경제를구축하는 것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 환경문제에대해서는규제를강화하는동시에시장메커니즘을이용하여환경문제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방침을밝히고있다.

또한, 미국이온실가스감축을이행하고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관해국제사회에서리더역할을수행하겠다고한다. 의료문제에대해서는모든미국인이의료보험을지원받을수있도록 정부가주도하는의료보험 시스템을도입하겠다는방침을천명하고있다.

시사점

오바마정부의출범은미국경제정책에큰전환점이될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위기의 와중이라 과거 과도한 규제 완화와감독의부재에대한비판여론이높은상황인만큼민주당과 오바마의 정책 기조는 빠른 속도로 강하게 미국의 경제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으로서는한미 FTA의 비준 지연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 경제 상황을감안할때당분간한미 FTA 문제의진전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는반면, 무역분쟁등통상마찰은증가할가능성이 높다. 이는분명우리기업에게는위협요인이되겠지만기회요인이전혀없는것도아니다.

오바마는미국내의일자리를줄이는기업에대해서는혜택을 없애겠지만, 반대로미국내에서일자리를창출하는기업에게는세금등의혜택을부여할것이라는방침을밝혔다. 따라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대미 직접 투자 환경은 호전될 수 있다. 또한,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위협과기회를잘파악해서현명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